14~17세기 전쟁이 전라도에 남긴 흔적은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 출간

해남 향화촌·황조촌 제시…"지역 문화자원 활용되길"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가 14~17세기 전라도 지역사를 기록한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 를 펴냈다.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와 호남 지역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책을 펴냈던 김 교수는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민족사의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전쟁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했다.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 는 14세기 고려 말기 왜구 침략에서부터 17세기 조선 중기의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전라도 지역사에 남긴 흔적을 ▲왜구와 지역사회의 변화 ▲왜란과 지역민의 대응 ▲호란과 지역민의 대응 등 3개의 장으로 구분해 엮어냈다.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도는 중국과는 떨어져 있고, 일본과는 다소 비켜나 있지만 전쟁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아왔다. 그 결과 전쟁이 남긴 흔적이 인물·유적·저술·기념일·지명 등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라도 지역사회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

흔적을 둘러보자면 우선, 행정구역을 바꾸고 새 지명을 탄생시켰다. 고려 말 왜구들이 침략해 노략질을 감행하자 서남해상의 영산도(흑산도)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나주에 정착해 그곳이 영산포가 됐다. 장산도 사람들도 나주 남쪽 왕곡면에 들어와 사니 그곳이 장산리가 됐다. 진도 사람들도 왜구 침략을 못 견디고 육지로 나와 나주, 영암, 해남 등을 전전하다, 조선 왕조의 강경책으로 왜구 출몰이 진정되자 무려 8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옛날에 고을 치소가 있었다는 뜻으로 고군면, 군내면 등의 지명이 남겨졌다.

두 번째로는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왜구가 육지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바닷가 곳곳에 수군기지가 설치되고 육지 중간에도 산성이 쌓아졌다. 그 가운데 영산강 입구 목포에 목포진이 조선 초기에 설치됐다. 1897년 목포에 개항장이 설치되고 그로부터 목포부·목포시가 근현대시기에 서남해의 주요 도시로 발돋움 했다.

세 번째로 역사인물을 탄생시켰다. 1587년 중무장한 왜구들이 손죽도를 침략하자, 녹도만호 이대원이 홀로 나가 싸우다 장렬하게 순국한다. 호남 연해민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는 등 이대원을 숭앙하기 시작했으며, 손죽도 사람들은 섬에 이대원의 가묘와 사당을 지었다.

다음으로는 문화유산을 남겼다. 고려 말 왜구들이 침략하자 섬과 바닷가 사람들은 신앙으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바닷가에 매향을 하고 매향비를 세웠다. 현재 영광, 신안, 영암 등지에 매향비가 남아있는데, 비석은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결사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마지막으로 귀화촌을 탄생시켰다.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왜군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잔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조선 정부는 귀화인을 주로 바닷가 지역에 정착시켜 해남에 귀화촌(향화촌)이 있었다. 명나라가 망하자 배를 타고 망명해 온 사람이 해남에 정착해 일군 귀화촌(황조촌)이 있었다. 영암과 고창 등에도 향화촌이 여러 곳 있었던 걸로 보아 전라도 해안가 도처에 귀화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린 내용들은 김 교수가 그동안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학술대회나 강연에서 발표한 글, 집필하다 중단된 원고 등에 현장 답사한 정보를 추가했다.

김 교수는 "이번 책에서는 전라도의 향화촌과 향조촌을 발굴하고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본서가 전라도의 귀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김 교수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연표로 보는 한국역사'·'조선후기 경제사연구'·'소쇄원 사람들'·'전라도 역사이야기'·'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등이 있다.

도서출판선인. 445쪽. 3만1,000원.

/이보람 기자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준비 착수

ACC, 내달 2일까지 보조사업자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7월 2일까지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장 백낙청)을 행할 보조사업기관(단체)이나 업체를 공모한다.

ACC는 오는 11월 6~9일 세계적 문호와 함께 아시아의 역사적 상처와 기억들을 치유하고 승화하는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행사를 수행할 기관을 7월 2일까지 모집하고, 7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 참가 업체는 최근 3년 이내 국제행사 및 문화예술 관련 축제를 수행했던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업체면 가능하다.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는"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문학이 인간의 상처와 꿈을 담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기록임을 확인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행사로 이어나가기 위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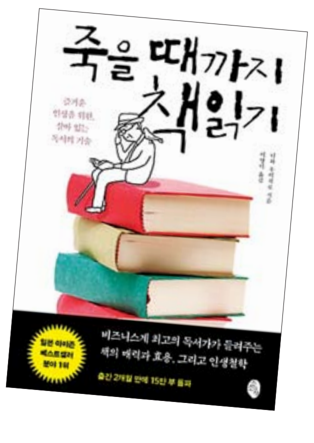
지난해 처음 개최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은 ' 아시아의 아침 '을 주제로 아프리카 최초 노벨문학 수상자 월레 소잉카를 비롯, 세계와 아시아의 다양한 문인들과 함께 동시대를 관통하는 아시아 문학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아시아문학상을 제정해 아시아 문학의 미학의 지평을 넓히는 공동의 장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민주, 인권, 평화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몸소 실천해온 지난해 행사 참여 작가들의 생각을 담아 유럽을 창구로 서로의 이름을 익힐 수 있었던 문학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평화에 기여하는 문학을 지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2017 광주선언문' 을 채택·발표한 바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오는 7월 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062-601-4033. /이연수 기자

■새로 나온 책

즐거운 인생을 위한 독서의 기술



◇**죽을 때까지 책읽기**=저자 니와 우이치로는 책읽기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매사를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나아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책을 읽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고 말한다. 책을 대하는 선입관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책을 읽고 싶지만 무슨 책부터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소소의책. 232쪽. 1만3,800원.

너, 나, 우리, 그녀들의 이야기

◇**그녀 이름은**=저자 조남주는 현재 대한민국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그녀들의 목소리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 28편의 이야기로 완성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대한민국 '그녀' 들의 땀과 눈물로 완성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이다. 결혼이라는 제도 중심과 언저리에서 고민하는 여성들, 제 이름도 잊은 채 가사·양육·직장 등을 오랜 시간 떠맡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 등 각 장마다 눈물 또는 웃음 혹은 다짐이라는 서로 조금씩 다른 온기로 전달된다.

다산책방. 276쪽. 1만4,500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얼굴의 살인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완벽하게 아름다운 청년 도리언 그레이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다운 젊음을 유지하고, 대신 초상화가 늙어가면서 더불어 그가 지은 죄의 흔적까지 모두 젊어지고 추하게 변해간다. 죄를 짓지 않고 외모만큼 아름답게 살아가면 언젠가 초상화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리라 믿지만 처음 결심과 달리 쾌락과 욕망에 빠져들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년의 얼굴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된다.

위즈덤하우스. 452쪽. 1만2,000원

나라와 우리말을 사랑한 한글학자

◇**주시경**=주시경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던 시절,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한글학자다. 주시경은 우리글의 문법을 연구해서 모두가 통일된 규칙에 따라 우리글을 쓰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했다. 우리글 연구가 빛을 발한 첫 결과가 바로 '독립신문' 이다. 독립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우리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대한국어문법', '국문초학', '국엄누전음악', '말의 소리' 등 다양한 책으로 펴냈다.

시공주니어. 124쪽. 1만 원. /이보람 기자